

청주

나라사랑 역사의 길

제1편_청주지역의 3·1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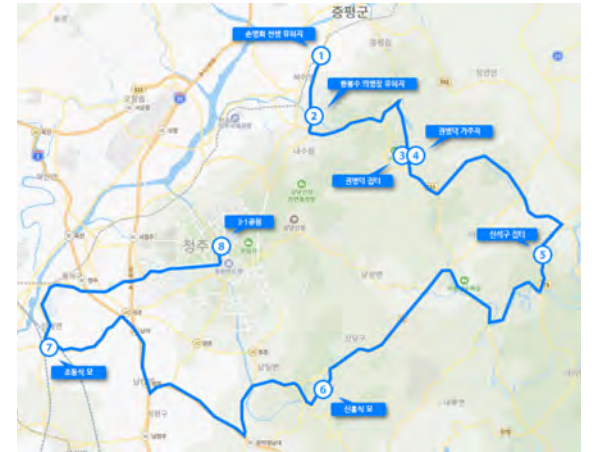
‘나라사랑 역사의 길’은 독립기념관에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한 국내 독립운동·국가수호 사적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획된 기록물로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사적지를 중심으로 현충시설, 전근대 역사유적, 경관 등을 탐방할 수 있는 역사의 길이다. 도로교통 저널에서는 독립운동 및 6·25전쟁 국가수호 사적지를 알리고 나라사랑 역사의 길을 간접적으로 탐방할 수 있도록 기획 연재할 예정이다.

연재를 시작하며

항일독립운동과 6·25전쟁의 현장은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숨 쉬고 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들 역사적 현장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는 국가보훈처의 지원 아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에 걸쳐 국내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사적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국에 산재한 사적지 정보를 축적하였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자료를 개발하였다. 국내 독립운동·국가수호 사적지 홈페이지(<http://sajeok.i815.or.kr>)가 그 노력의 결실이다.

탐방로 안내

청주의 3·1운동사적지를 주변에 가볼만한 곳과 연계하여 탐방함으로써 3·1만세운동에서의 독립운동가들의 역할과 역사적 의의를 되새겨본다. 참고로 청주의 청주의 3·1운동사적지 코스는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자차나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한다.



코스 개요

충북지방의 만세시위는 전국에서 가장 늦은 1919년 3월 19일 괴산을 시위로부터 본격화되어 4월 말까지 지속되었다. 만세시위가 늦게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지방은 3·1운동의 초기 계획 단계를 주도한 이른바 민족대표 33인 중 6인을 배출한 고장이라는 점에서 특이할 만하다. 민족대표의 수장이었던 손병희를 비롯하여 권동진·권병덕 등 천도교계 3인과 신석구·신흥식 및 정춘수 등 기독교계 3인이다. 그 가운데에 권동진을 제외하고 무려 5명이 청주시 출신이라는 점에서, 일개 군에서 5인의 민족대표를 배출한 것은 전국적으로도 최다이며 자랑할 만한 것이다. 또한 충북지방은 새로운 형태의 3·1운동을 선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예컨대 조동식은 봉화만세운동을 주도한 인물로서 그 영향력은 경기·충남의 봉화만세운동에까지 영향력을 미쳤다. 이러한 청주인들의 활약에 힘입어 전 민족적인 3·1만세운동은 한층 발전되고 성숙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이처럼 3·1운동을 주도한 청주인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걷다보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이들 중에는 민족대표로 활약하다가 일제에 협력한 정춘수 같은 인물도 있음을 본다. 그의 당시 행동이 후대에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탐방로 안내

① 손병희 선생 유허지	⑤ 신석구 집터
② 한봉수 의병장 유허지	⑥ 신흥식 묘
③ 권병덕 집터	⑦ 조동식 묘
④ 권병덕 거주지	⑧ 3·1공원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일대
(총 드라이브 소요시간 약 150분)

손병희 선생 유허지



의암 손병희 선생은 일제강점기 3.1만세운동의 주역인 천도교인으로서 천도교지도자, 독립운동가, 교육사업가로 활동하였다. 1919년의 3.1운동의 주역인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만해 한용운 등과 함께 가장 인지도가 높은 인물 중 한명이다. 소파 방정환 선생의 장인이기도 하다. 3.1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의 한 사람인 손병희가 어릴 적에 성장하였던 집을 중심으로 손병희 선생 유허지를 복원하였으며, 생가는 정면 4칸 측면 1칸 반의 초가집으로 원형을 보존하고 1961년 탄신 100주년을 맞아 유허비를 건립하였다. 이후 2000년 3월 1일에 의암영당과 의암기념관을 개관하였다.



한봉수 의병장 유허지



한봉수 의병장은 1884년 충북 청주 산외일면 세교리에서 태어나 일제 강점기 당시 수많은 독립운동에 앞장선 독립운동가이다. 3.1운동 때에는 청주에서 시위하여 2년 6월의 옥고를 치렀다. 한봉수 의병장 유허지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학평리 85-4번지에 있다. 2015년 4월 17일 청주시의 향토유적 제116호로 지정되었다.



권병덕 집터 · 주거지



권병덕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18세에 동학에 입도, 동학농민전쟁 시 보은의 동학교도들을 이끌고 참가했다가 관군에 진압당한 뒤 전국 각지를 방랑하였다. 그러다가 1908년 일본에서 귀국한 손병희가 천도교를 일으키자 합류해 천도교 전제관장 · 이문관장 대리 · 금용관장 · 보문관장 등을 역임하였다. 1919년 3월 1일 태화관 독립선언식에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 참여해 2년간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천도교 종교활동에 주력하였다.



신석구 집터



신석구는 34세 때인 1908년 개성 남부감리교회에서 미국 선교사 왓슨에게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다. 이후 1919년 서울 수표교회 담임목사로서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이 되어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피체되어 2년간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1930년에 감리교단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신사참배를 행하던 분위기 속에서도 1938년 천안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검거되어 다시 투옥되었다. 광복 후 1949년에 진남포에서 반동비밀결사의 고문으로 추대되었다는 죄목으로 검거되어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총살당하였다.



신흥식 묘



신흥식은 30세에 기독교에 입교한 뒤 1913년 협성신학교를 졸업하고 감리교 목사로 공주에서 포교활동을 하였다. 1919년 3.1운동 당시 그는 공주를 거쳐서 1917년부터 평양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 3.1 운동에는 이승훈의 권유를 받고 북감리교의 대표로 참가했는데, 준비 단계에서 미리 경성부에 올라와 박희도 등 북감리교 인사들을 이승훈에게 소개하고 평양 지역의 만세 운동도 조직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 이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조동식 묘



조동식은 1919년 3월 23일 청원군 강내면 태성리 산마루에서 주민 수십 명과 햇불을 들고 봉화 만세운동을 펼쳤다. 3.1운동에 독립선언서를 담은 출판물을 배포하다 체포되어 2년의 옥고를 치렀다. 일제는 조동식의 봉화고변을 폄훼하고 있으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근 일대에 독립만세시위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4월 1일에는 청주 인근 8개 면의 산 위에서 일제히 봉화가 타올랐다. 이어서 인근에서 4월 9일까지 이 시위가 일어났다.



3·1 공원

삼일공원(三一公園)은 충청북도 청주시에 있는 공원이다. 1988년 청주시 상당구 수동 우암산 입구에 건립되었다. 삼일공원이라는 이름은 3.1운동에서 따온 것이다. 공원 안에는 충청북도 출신의 민족대표 33인인 손병희, 권동진, 권병덕, 신석구, 신흥식의 동상에 세워져 있다. 공원이 자리 잡은 우암산은 청주시 동편에 있는 청주의 진산이다. 높이는 해발 353.3미터로 그다지 높지 않지만 수목이 울창하고, 삼일공원 인근에는 산책로와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다. 청주향교와 청주대학교, 국립청주박물관도 가까이 있다.



함께 가볼만한 곳 문의문화재단지



문의문화재단지는 1980년 대청댐 건설이 계기가 되어 1992년부터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총 4만여 평의 대지 위에 문화재 단지를 조성하게 되었다. 이곳은 청주 시내 유·무형의 문화재 등을 수집 전시함으로써 인류 문명의 발달과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재현하고 조상의 삶과 업을 되살리고 배우기 위한 역사의 산교육장이다.

단지 내에는 문의 아득히 고인돌, 미원 수산리 고인돌, 내수 학평리 고인돌이 이전되어 있고 문의현의 관아 객사 건물인 지방유형문화재 제49호인 문산관이 이전 복원되었으며 낭성면 관정리와 문의면 노현리, 부강면 부강리에서 민가가 이전되었으며, 서길덕 효자각, 김선복 충신각 및 문의지역에 있던 옛 비석도 이전되어 있다. 옛 조상들의 생활 풍습을 알기 위하여 양반 가옥, 주막집, 토담집, 대장간, 성곽 등이 고증을 거쳐 건립되었으며 유물 전시관에는 낭성면 무성리에 있는 영조대왕태실 조성을 기록한 지방유형문화재 제 70호인 영조대왕태실가봉의 궤를 비롯하여 군내에서 수집한 유물을 전시한 유물관과 백제부터 근대까지 기와를 시대별로 분류한 기와 전시관이 있다.

이 밖에도 이곳 문의에 오면 10분 거리 이내에 청주 시민들이 많이 찾는 양성산 등산로, 작은옹골 분수대, 쾌적한 드라이브 코스인 청남대 도로, 청소년들의 체력 단련장인 청소년 수련관과 충북 지역 작가들로 구성된 예술인촌이 조성되어 있어 「문의에 오면 문화가 보인다」는 말이 실감나는 지역이다.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대청호반로 721)
출처 :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청주시청, 청주시청 블로그, 한국관광공사



자료와 사진을 제공해주신 독립기념관, 청주시청, 한국관광공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